

ECAFE 會議 參席記

韓國電力株式會社·理事
大韓電氣協會·常任理事

金 鍾 珠

1. 會議의 性格

ECAFE란 Economic Council for Asia and the Far East(亞細亞 및 極東經濟委員會)의 略稱이다. 今般 會議는 電力部門 專門家들로 構成된 實務會議로서 正式 이름은 “The Working Group of Experts o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Electric Power in the Industrialization in Asia and the Far East” 即 “亞細亞 및 極東에 있어서의 工業化에 미치는 電力의 役割과 應用”을 議題로 하는 專門家의 實務會議이었다. 實務會議이기 때문에 正式 國家代表로서의 資格은 없고 ECAFE 事務局에 對하여 各自 가지고 있는 經驗과 知識을 提供함으로써 共同으로 報告書를 作成하는 作業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適切한 表現일 것이다.

2. 出 發

國內는 洪水 被害로 큰 受難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월 17일 서울을 떠나 18日 午後 5時 頃 泰國의 首都 曼谷에 到着하였다.

飛行機 타라가지 ECAFE 職員이 나와 마중하여 주었고 入國, 稅關 等手續도 도맡아서 하여 주었다.

3. 會議期間

7月 19日 會議 첫날, ECAFE 本部 204號室에서 開會式이 있었다. 開會式이 始作되기 直前에 式場 韓國代表席까지 찾아와 「韓國에서 오셨습니까?」하고 人事하는 분이 계셨다. 몹시 반가웠다. ECAFE의 研究企劃部에 勤務하고 계시는 金洛觀氏였다. 親切하게도 저녁 招待까지 하여 주셨다. 우리 나라 學者의 國際的인 進出이 반갑고 마음 든든하였다.

10時 正刻 開會式이 始作되었다. 事務總長 우누氏(Mr. U Nuh, Secretary-General)가 外國 出張中이라 工業局長 메논氏가 開會人事를 하였다. 다음은 議長 選出. 會議 始作前 電氣課長이며 이 會議의 幹事 役割을 할 라가만氏(Mr. Raghavan)가 議長 選出에 있어서 가장 年長者인 네이어氏(Mr. K.P.S. Nair)를 選出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贊成이면 比律賓代表가 勳談을 할 것이니 再請을 하여 줄 수 없겠느냐는 事前 交涉이 있었다. 네이어氏는 印度代表 두 사람 中의 한 사람으로 印度政府의 水資源開發局長, 顧問 등을 歷任한 분이고 前에 EBI總會 때에도 만난 적이 있는 舊面이기에 그대로 應諾하였으며 勳談, 再請의 節次를 거쳐 豫定대로 네이어氏가 選出되었다. 議長 人事. 開會式은 이것으로 끝내고 一段 散會. 메논 局長이 各國 代表들과 握手을 나누고 點心을 招待하였다. 이 會議에 나온 國家는 韓國, 日本, 印度, 이란, 프랑스, 自由中國, 세이론, 泰國, 越南, 比律賓, 파키스탄 등 11個國이고 이 中 印度와 日本에서는 2名의 代表가 왔고 그 외는 모두 1名 씩이었다. 프랑스는 ECAFE 會員國은 아니나 最近 프랑스 技術會社 소프렉(SOF-RELEC)에서 메콩江 開發을 爲한 技術調査 및 設計를 하였고 이 江의 開發은 越南, 캄보디아, 라오스 및 泰國이 共同으로 推進할 ECAFE 地域 內의 重要한 國際協助事業이기 때문에 特別히 參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參席者의 地位는 課長級에서 政府次官(이란代表)까지 있었으나 大部分 政府의 局長 또는 會社의 部長級이었다.

點心은 ECAFE 構內食堂 別室에서 메논局長의 待接을 받았다. 午後 會議는 2時에 續開되었다. 처음에는 오늘은 開會式만 있고 午後에는 월출 알았으나 2時에 續開하도록 우리끼리 相議가 되어 버렸다.



7月 19日 · 開會式 後 1次會議

2時 正刻 續開. 各國 代表의 自國 電力事情 紹介, 議案 採擇, 報告書 作成要領 等 議決. 4時가 조금 지나 끝났다. 바로 택시로 大使館 訪問. 이곳 택시는 메타제가 아니고 흥정으로 定한다. 미리 定하고 타지 않으면 若干 바가지를 쓴다는 이야기. ECAFE 守衛에게 附託하여 15바트(Baht: 20 Baht 가 1 美弗)로 흥정이 되었다. 며칠 後 大使館에서 올 때는 大使館 守衛로 있는 印度人이 흥정을 해 주어서 12바트로 왔다. 大使館에서는 經濟擔當金 書記官, 參事官, 張 大使任께 人事를 하고 會議에 關한 相談, 泰國 事情 이야기 등으로 6時까지 歡談. 호텔까지 金 書記官이 배워다 주었다. 6時 半에는 金洛觀氏가 호텔로 車를 가져와 宅으로 案内받았다. FOA에 계시는 林學省 金 先生, 僑胞 朴 社長, 大使館에 계시는 朴 書記官이 같이 招待 받아 오셨다. 훌륭한 집에 潤澤한 生活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내 自身이 잘사는 것 못지 않게 반갑고 기뻐했다. 그 親切에 고마운 마음이란 말할 必要도 없고. 나라 政治 이야기, 經濟發展策 等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모두가 나라의 繁榮을 祈願하는 愛國者다. 나라가 이제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10時나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約 2個月 前 休暇로 韓國에 갔을 때 韓國서 가져 왔다는 된장과 고추장으로 料理했다는 盛饗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內外분이 호텔까지 배워다 주었다.

20日부터 30日까지 土曜日을 除外하고는 每日 아침 8時 30分부터 下午 4時 30分까지 會議가 있었다. 報告書에 包含될 項目을 定하고 各 項目別 分科委

員會를 構成, 分委에서 原案 作成(事務局에서-原案 草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부터 讀會까지 끝낸 後 事務局에 넘어가면 大概 24時間 內에 프린트가 나온다. 各 分委에서 作成된 이 프린트는 全 代表에게 配布된 2,3日 後에 全體會議에서 討議, 修正된 다음 最終案으로 採擇되는 것이다. 筆者가 屬한 分委에서는 序論, 各 會員國의 에너지資源과 電力事業 現況 및 將來 計劃, 各 會員國의 電氣機器製造工業 現況의 3章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原案을 만들고 修正하고 資料를 調査하는 일을 繼續하고 저녁에는 호텔에서 他 分委에서 作成된 프

린트를 檢討하여야만 했다.

分委에서나 全體 會議에서 討議되는 內容에 對하여는 自信을 가지고 意見を 말할 수 있고 또 興味도 느꼈으나 原案 作成할 때 英文에서는 表現力의 不足을 痛感하였으며 國際會議에서 語學實力의 重要性을 새삼 느꼈다. 全 參加者의 共同努力과 事務局의 迅速適切한 支援으로 報告書가 完成되어 나왔을 때는 매우 기뻐했다. 7月 30日에는 報告書 序頭에 붙을 序文(Letter of Transmit)을 審議 通過後 報告書에 共同 署名함으로써 作業은 모두 끝났다. 午後 2時에 閉會式. 是는 局長의 閉會 人事가 있고 3時 30分 報告書의 最終 프린트를 받고 作別握手를 나누며 헤어졌다.

會議期間 中에 일어난 일들. 생각나는 일들.

같은 호텔에 있는 세이론代表 보고 그 나라의 國民 1人當 所得을 물었더니 「開市場換率 基準으로 하면 15弗」이라고!! 우리 나라의 95弗에 比하면 問題가 안된다. 世界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여 보았으나 우리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를 發見하기란 쉽지 않았다. 남이 못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自尊心이 存在할 餘地를 發見하여 보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르겠다.

越南서 온 카아氏(Mr. Kah)는 내가 第一 親하기 쉬운 模樣으로 나한테 무엇이든 相談한다. 나라 事情이 南北으로 分斷되어 있는 點 等 비슷하여 親密感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카아氏는 會議室에서 프랑스 사람과 休息時間中 프랑스 말로 雜談을 잘 하

었다. 우리 百姓이 日本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시달린 運命의 結果 얻은 所得인 듯.

7月 24日은 土曜日이었다. 貿易總長 崔氏, FOA 職員 金 先生, 僑胞 朴 先生과 같이 終日 골프를 치고 僑胞가 經營하는 韓國食堂 코리아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 늦게 FOA에 계시는 金 先生宅에 갔다. 술을 마시고 金 先生 마님(12歲 假傭)의 韓國民俗舞踊을 즐기고 나중에는 모두 흥겨워 트 위스트, 밤보, 여러가지 춤을 추었다. 愉快한 하루였다.

7月 29日 木曜日에는 10時 30分부터 12時까지 메트로이드電力會社 會長이며 電力事業界에 國際적으로 著名한 씨슬러氏(Mr. W. L. Cisler)가 演說을 하게 되어 있었다. 氏는 이란, 越南, 臺灣, 比律賓을 訪問하는 途中 방콕에 잠깐 들렀는데 ECAFE 事務局에서 今次 會議의 特別프로로 氏의 演說을 갖기로 한 것이다. 8時 半부터 10時 半까지는 全體 報告의 最終 議會가 있었다. 씨슬러氏는 10時 30分 正刻에 會議場에 들어 오셨다. 演說 內容 中 韓國에 關한 이야기가 여러가지 있었다. 原子力에 關한 이야기 中 1封度 무게의 石炭棒과 1封度 무게의 우라늄棒을 가지고 韓國을 包含한 東洋 몇個國을 다니며 演說한 적이 있었다(1959年頃의 일이었을까?). 1封度の 石炭은 4Kwh의 電力量을 가지고 있는데 對하여 1封度の 우라늄은 1,200萬Kwh의 電力量을 가지고 있다고 說明하였다. 같은 이야기를 李承晚 大統領에게도 說明하게 되었는데 그 분은 「우리는 언제 그러한 發電所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고 물으시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4. 比律賓과 臺灣 旅行

방콕에서 마닐라로.

8월 1일. 日曜日. 에어, 프랑스로 上午 10時 방콕을 떠났다. 집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기쁜 것도 事實이고 방콕을 떠나는 것이 섭섭한 것도 事實이었다. 그동안 倚이 든 모양이었다. 途中 사이공 飛行場에서 約 半時間 쉬게 되었다. 美軍이 많이 눈에 띄고 飛行場 食堂은 相當히 混雜하였으며 6.25 當時의 우리 나라 形便을 생각나게 하였다. 마닐라 飛行場에 到

着한 것은 午後 4時 半頃. 約 30分을 現代式 하이웨이를 달려 豫約한 마부하이·호텔(Hotel Mabuhay)에 到着하였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뜻밖에 우리 말을 하는 세 분을 만났다. 人事를 하고 보니 세 분이 다 林氏였다. 그 中 한 분은 間接적으로 아는 분이고 또 한 분은 約 40年 前에 우리 나라를 떠나 中國에서 約 10年 계신 後 이곳에 와서 다바오市에서 病院을 經營하고 계시는 林 博士였다. 半世紀를 外國에서 지낸 七旬 老人이었으나 우리 나라 말을 流暢하게 하셨다. 아는 사람이라곤 한 분도 없는 곳에 왔구나 하는 의로움이 一時에 霧散되는 기쁨을 느꼈다. 暫間 兩 다음 저녁 食事を 마친 後 호텔 附近을 散策하였다. 뒷 골목 거리는 不潔하고 風紀도 紊亂한 듯. 外貨保有高도 많고 國民生活도 比較的 潤澤한 便이나 社會問題도 많고 어딘지 모르게 病든 나라 같은 印象을 받았다.

8月 2日. 月曜日. 맑은 後 비.

9時 半頃 大使館 訪問. 朴 書記官과 大使任께 人事. 大使께서는 바쁘신 中에도 이 나라 經濟事情等을 仔細히 말씀하여 주셨다. 11時 마닐라電力會社 訪問. 副社長 사브란氏(Mr. Zablan)와 만났으며 生産企劃部長(Chief, Production Planning Division) 산氏(Mr. Sun)와 約 1時間 電源開發企劃問題를 討議하였다. 點心은 산氏의 待接을 받고 午後에는 營業課長과 料金問題, 收金關係 等を 討議하고 3時 30分頃 電力公社(National Power Corporation)를 訪問하였다. 이 電力公社는 NPC로 通稱되고 있으며 主



7月 28日·報告書 最終案 議會 光景

로 發送電事業을 하는 國營會社이며 一部 配電事業 (民間 配電會社에서 손을 떼기 싫어하는 收支 맞지 않는 地方에 對한)도 하고 있다. 反面 마닐라電力會社는 純 民間會社이고 社長이 株式의 大部分을 갖고 있으며 마닐라市와 그 周邊의 配電을 맡고 있고 發電所도 여러箇 갖고 있다. 저녁에는 林兄과 조용한 吧 타운스·테번 (Town's Tavern)에서 麥酒를 즐겼다. 조용한 窮困氣, 좋은 音樂,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리랑, 도라지 등 韓國民謠를 훌륭하게 演奏하여 주었다. 우리가 韓國 사람인줄 어떻게 아는 지 모를 일이었다.

8月 3日. 火曜日 비.

오늘은 마닐라電力會社 所有로 市內에 있는 록웰 (Rockwell) 火力發電所를 보기로 되어 있다. 산 氏의 部下인 마튜 氏가 8時 30분에 車를 가지고 호텔로 와 주었다. 비가 와서 몹시 덥지 않아 좋았다. 마튜 氏는 무슨 模樣인지 저울채타를 입고 있었다. 發電所에 到着한 것은 9時頃. 所長은 美國人이었다. 이 會社는 首席 副社長 (First Vice-President)도 美國人이었으며 아직 要職에는 몇분 美國人이 남아 있다는 案內者의 이야기였다. 이 發電所는 더어진 發電機 8基, 容量 30萬3千Kw, 從業員 215名. 發電所에서 다시 마닐라電力會社 本社로 와서 副社長 사브란 氏와 組織과 營理 問題를 討議하였다. 우리 나라와 大同小異한 生産性이나 俸給水準은 우리 會社의 경우의 約 2倍. 이 나라 百姓들은 消費水準이 所得水準보다 훨씬 上廻하고 있는 듯. 係長級도 大概是 自己 車를 運轉하고 出退勤하는 것 같았다. 點心은 사브란 副社長の 待接을 받았다.

8月 4日. 水曜日. 비 後에 맑음.

오늘은 NPC의 Caliraya 水力發電所를 求景하고 午後 7時 10分發 飛行機로 떠나야 한다. 아침 7時 NPC의 안젤로 氏 (Mr. Angelo)가 車를 가지고 호텔로 와 주었다. 氏는 前에 이 水力發電所의 所長을 지낸 바 있는 技師라고 한다. 이 發電所는 마닐라에서 自動車로 約 2時間 半 距離의 南쪽에 있는 3萬 6千Kw 容量의 別로 特記할 點이 없는 것이었다. 途中에 필립핀大學校 農科大學을 求景하였다. 特히 農科大學은 東洋에서도 設備 좋기로 有名하고 外國에서 온 留學生도 많다고 한다. 事實 오늘 이 水力發電所를 꼭 보겠다고 NPC에 付託한 것은 그理

由의 半 以上이 途中의 시골 風景을 보고싶어서였다. 本에서는 한창 農事일을 하고 있었다. 農事짓는 方法이 우리 나라와 頗 비슷하였다. 이곳은 僻村이라 發電所에 오는 손님들을 爲한 宿所 (guest hotel)가 있었다. 그 食堂에서 點心 待接을 받았다. 새우 野菜국, 닭고기 후라이, 돼지고기 구이 등 盛饌이었다. 所長 內外도 合席하였다. 飯은 發電所에서 30分 距離였다. 어어스·댐 (earth dam)이었고 溢流部 (spillway)가 우리 取水塔 같이 생겼다. 下午 4時頃 호텔에 돌아왔다. 途中에 시골 市場 求景도하고 椰子열매 속 물도 마시고 이름 모를 여러가지 果實도 試食하였다. 案內해 준 안젤로 氏의 親切과 待接에 感謝하였다. 下午 7時 10分發 飛行機로 마닐라를 떠나 10時 10分 臺灣에 到着하였다. 豫約한 호텔 中國大飯店에서 旅裝을 푼 것은 11時 20分이나 되어서였다. 價格으로 想像한 것보다 더 훌륭한 房이었다.

8月 5日. 木曜日. 맑음.

9時 30分 大使館 訪問. 經濟擔當 一等書記官, 參事官, 大使任제 人事하였다.

호텔 近處 거리에 露店食堂이 많이 보였다. 먹음직하게 보였다. 勇氣를 내어 試食하였다. 不潔한 듯하여 뜨거운 茶水에 젓가락을 消毒하였다. 돼지고기가 는 우동을 먹고 7元 (우리 돈 50원 相當) 支拂하였다. 돌아와 커피 한잔 10元을 내고 마셨다. 午後 2時 臺灣電力公司 訪問. 發電處 및 供電處 擔當 錢 協理 (副社長), 陳 社長, 徐 副社長, 肅 供電處長, 傅 發電處次長 등을 만났다. 모두 만가이 對해 주었으며 特히 陳 社長은 韓電과 臺灣電力은 姊妹會社라고 하며 長時間 歡談하였다. 建物은 比較的 貧弱한 便이고 相當히 더운 날씨인데도 冷房裝置가 없고 扇風機만 틀리고 있었다. 나중에 어떤 座席에서 重役室이나 部長室에 에어·콘디션을 하면 일 能率이 向上될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지나친 經費節約 같다고 弄半 眞半 이야기 하였더니 事實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社會가 그것을 잘 理解해 주지 않고 電氣料金 받아서 豪華하는줄 誤解하니 할 수 없다는 對答이었다. 저녁 食事は 肅 氏와 傅 氏를 내가 招待하였다. 손님 招待를 받을 수 없다고 처음 辭讓하였으나 結局 應해 주었다. 臺北의 地理도 잘 모르고 해서 내가 留하는 호텔 食堂에서 食事を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것보다 場所

는 우리가 좋은 곳을 案内하겠으니 그리 가자는 두
분의 提案이었다. 따라가 보았더니 서울로 비하면
韓一館보다는 좀 高級으로 보이는 大衆食堂이었다.
아마 내 호주머니를 念慮한 厚意에서인 것 같았다.
食事後 두 분은 未安한지 「御多福」이란 日本式
싸아에 案内하였다. 女給은 中國人이었으나 日本 사람
보다 日本말을 더 잘 하였다. 傅氏는 11年前 美國
에서 만난 적이 있는 舊面이었으며 肅氏는 3年前
에 우리 會社에 와서 約 한달 동안 財産再評價 關係
일을 본적이 있는 분이다. 조금도 外國人 같지 않은
處地였다. 밤 늦게 醉해서 돌아 왔다.

8月 6日. 金曜日. 맑음.

深奧(Shenao)火力發電所와 禹來(Ulai)水力發電所
求來. 發電所 그 自體는 우리 나라의 그것과 大同
小異. 오히려 이 나라 시골을 보고자 하는데 發電
所 求來를 希望한 理由가 있었다. 深奧發電所 第3號
機(20萬Kw) 建設中. 發電所 設計도 大部分 發電
自身이 하고 建設도 美國 監督者로 技術用役會社
깁스·앤드·힐(Gibs & Hill)會社에서 土木技術者
한 사람 만이 와 있었다. 所長과 人事. 所長은 1,2
號機의 運轉과 3號機의 建設을 兼務하고 있었다.
젊은 副所長이 所內를 두루 案内하여 주었다. 深奧
는 基隆(Keelung)을 지나 臺北서 約 1時間半,
禹來는 臺北서 1時間 程度의 距離였다. 深奧火力
發電所(20萬Kw)는 從業員 181名, 禹來水力發電所
(22,500Kw)는 28名으로 運轉하고 있다고.

저녁에 發電의 錢·徐 兩 副社長 이름으로 食事
招待를 받았다. 於 中央酒店. 兩 副社長 외에도 朱
博士(電源開發企劃部長), 肅 部長, 傅 次長 등 여러
분이 나왔고 大使館에서 李 一等書記官도 同席하여
주셨다. 마칩 스테이지·쇼오에는 韓國 쇼오가 上
演되었다. 세 사람의 韓國 舞姬가 춤과 노래를 불
러 拍手喝采를 받았다. 너무 辭讓하면 失禮가 될가
봐 勸하는 술잔을 繼續 받아 마시다 보니 過飲하
여 버렸다.

8月 7日. 土曜日. 맑음.

아침 8時 30分 Luchow 1次發電所(154Kv)와 石門
(Shihmen)水力發電所를 보기 爲해 떠났다. Luchow
發電所는 臺北 郊外에 位置하였으며 石門 水力發
電所는 臺北에서 東南方 約 50km 距離에 있었다.
水力發電所가 있는 坊坊谷谷까지 道路가 모두 鋪

裝되어 있었고. 道路邊-글을 쓸 수 있는 곳이면 바
위나 세멘트壁이나 할 것 없이 「勝共統一」, 「本土收
復」, 「偉大한 領導者 蔣總統 萬歲」等 슬로간이 쓰
여져 있고 어딘지 모르게 緊張된 團結이 表示되
어 있었다. 道路 가에는 굵은 送油管이 가도가도
道路를 따라 뻗고 있었다. 基隆에서 高雄까지 가는
400km 送油管이라는 같이 가는 臺灣電力 肅 部長의
說明이다. 警備하는 사람 하나 없이 이 送油管이 잘
保存된다는 것은 都市, 시골 할 것 없이 生活이 安
定되고 도둑이 없는 證據라고 생각되었다. 이 나라
시골길을 많이 돌아보면서 農村이 復興된 것을 보
고 놀랐으며 부럽게 생각되었다. 農家도 大概是 벽
돌집이고 울타리가 없다. Luchow 1次發電所는 19
62년에 竣工된 比較的 새로운 施設이며 넓은 地
에 餘裕있는 設計로 되어 있었다. 建物도 훌륭한 2
層 建物이며 2層이 配電室, 아랫층이 事務室과 倉
庫로 되어 있고 所長室은 따로 없었다. 石門水力發
電所는 昨年에 竣工된 多目的計劃에 依하여 政府
가 建設한 것이다. 發電所 以外에 灌溉用水路, 一
定한 量의 灌溉用水를 恒常 確保하기 爲하여 下
流에 建設된 調節用 貯水池 등 大規模한 施設이 있다.
總 建設費는 美弗換算 8,000萬弗이고 이 中 外貨
3,000萬弗은 美國 DLF 借款으로, 內資 5,000萬弗
相當額은 臺灣政府에 依하여 調達되었다고 하며 目
的 比率는 灌溉 55%, 發電 30%, 工業用水供給 9%,
洪水調節 6%로 되어 있다고 한다. 發電設備容量 9
萬Kw(이는 溫度上昇 60°C 基準이고 溫度上昇 80°C
까지 許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10萬4,000Kw), 信
賴性 있는 最大供給能力 87,400Kw, 年間 生産電
力量 約 2億Kwh로 되어 있다. 運轉은 臺灣電力이 擔
當하고 受電電力에 對하여는 政府에 料金を 支拂하
며 運轉經費는 政府에서 받는 契約으로 되어 있다.
댐은 巨大한 높이 133m의 록필·댐(rockfill dam)
으로 秀麗한 景致를 兼하여 有名한 觀光地로 되어
있고 一般 觀光客은 料金を 내는 모양이었다. 親切
하고 有能하며 自信滿滿하여 보이는 所長 謝煥邦氏
는 정말 믿음직하였으며 建設 初期부터 設計를 擔
當한 분으로서 물어서 對答 못하는 것이 없고 英語
도 能通하였다. 屋外에는 相當한 建設費가 所要되
었으리라 보이는 噴水가 있고 發電所 全般에 걸쳐
技術面으로나 外觀上으로나 奢侈하다고 보일 程度
로 餘裕있고 潤澤한 設計였다. 點心 食事を 爲하여
案内된 外賓館(guest house)은 훌륭한 호텔 같이 보

였으며 勿論 留宿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案內하는 總務課長이 「安寧하십니까?」하고 우리 말로 人事를 하여 놀랐는데 이 분은 韓國서 12年 間이나 案內 人으로서 外國사람 같이 안보일 程度로 우리말을 잘 하여 편 반가웠다.

저녁은 韓食 생각이 懇切하여 방목에서 들은 바 있는 「阿里郎」 불고기집을 찾았다. 호텔 뒤편 시켜 住所와 電話番號를 알아 달라고 付託하였으나 電話는 없다는 것이 確認되었고 住所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거리에 나가 三輪 人力車を 불러 「阿里郎」이라고 쓴 것을 보였더니 타라는 손짓을 한다. 쉽게 찾아 주었다. 택시나 三輪 人力車가 열 마든지 있으니 말이지 우리 나라 같이 택시를 잡을 수 없을 경우 外國 觀光客이 얼마나 不便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期待를 걸고 「阿里郎」이라는 看板이 붙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훌륭한 食堂은 勿論 아니었다. 從業員은 모두 中國人이고 安主人이 故國서 오셨느냐고 人事를 하여 주어서 반가웠다. 고기도 서울것 같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安主人 말씀이었으나 서울것 以上으로 맛있게 먹었다.

8月 8日. 日曜日. 맑음.

李 一等書記官任의 好意로 大使館에 계시는 大使任 以下 여러분 및 僑胞들과 같이 「六和」라는 조용한 私有 골프場에서 골프競技로 하루를 즐겼다. 賣店에서 食事を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무 準備 없이 갔다가 가지고 오신 도시락까지 신세를 졌다.

8月 9日. 月曜日. 맑음.

8時 45分 臺灣電力 訪問. 離臺 人事. 韓國을 다녀간 바 있는 衣 博士(電源開發擔當 副社長) 방목會談에 中國代表로 參席하여 그곳에서 親분이 생김 王 副總工程師(副技師長格)와 만나 電力事業全般에 關하여 歡談. 電源開發企劃部長 朱 博士와 約 2時間 동안 電源開發企劃 上의 技術的인 問題, 經濟的인 問題 等を 論議하였다. 얻는 바 많았다.

午後에는 大使館에 떠나는 人事次 갔다. 尹 參事官, 李 一等書記官, 大使任께 그 동안 便宜와 도움을 提供해 주신데 對하여 眞心으로 感謝하였다. 特히 金 大使任께서는 우리 電源開發計劃, 에너지의 將來, 臺灣의 經濟成長 等 여러가지로 意見을 주고 받으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다. 午後 5時 頃부터 李 書記官의 案內로 陽明山公園을 求景하였다. 蔣 總統이 있는 官邸가 있는 南山보다 若干 畝

公園으로 훌륭한 施設과 人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程度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지나친 人工으로 오히려 自然美를 窄치고 있는 듯한 部分도 없지 않았다. 저녁은 李 書記官 宅에서 待接을 받았다.

8月 10日. 火曜日. 맑음.

9時 50分 CAT 便으로 臺北空港을 떠났다. 大使館 李 書記官께서 車를 가지고 와서 空港까지 饌送하여 주셨으며 臺灣電力 肅 供電處長이 空港까지 나와 주었다. 初面の 두 분께는 정말 너무 身勞를 많이 졌다.

8月11日. 水曜日. 맑음.

東京서 조용히 하루 밤을 지내고 아침 9時 頃 호텔을 떠나려고 하는데 航空會社에서 連絡이 왔다. 飛行機가 約 3時間 延發할 豫定이라는 것이다. 房으로 도루 올라갈 수도 없고 하여 옛날 다니던 大學에나 가 보기로 하였다. 몇몇 親知 教授를 찾았으나 放學中이라 안 계셨다. 軍에 對해 새 建築物이 서기는 하였으나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다. 내가 實驗하던 冊床도 그대로이며 講義室에도 그때의 教授나 클래스·메이트들의 體臭가 남아 있는 듯하였다. 別로 오가는 사람도 없는 構內 벤치에 앉아 가까운 옛날 먼 옛날 일들의 생각에 잠겼다. 時間이 되었기에 空港으로 가서 서울行 飛行機를 탔다.

5. 結 言

3週日 동안 바쁜 旅程이었으나 많이 배우고 많이 즐길 수 있는 旅行이었다. 東南亞 各國이 若干 程度의 差는 있으나 비슷한 苦悶을 가졌으면서도 強力한 建設意慾으로 發展을 爲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 泰國은 經濟가 完全히 安定되어 年間 輸出高만도 7億弗을 突破하고 있고 外換이 거의 完全 自由化되어 있어 호텔에서 아무 手續 없이 美弗과 交換할 수 있으며 配電施設만 보더라도 歐美式으로 現代化되어 있고 家庭用 配電電壓도 200V로 昇壓되어 있다. 比律賓 亦是 外換事情이 좋고 發展의 意慾도 크나 市場에는 外來 密輸品이 根絶되지 못한 것 같고 어딘지 모르지 社會的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 듯하였다. 配電電壓도 同一 호텔 內에 100V, 200V 두가지가 供給되고 있어 關係者에게 물어 보았으나 電力會社는 200V 供給을 志向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難點과 壓力 때문에 國家的으로 非經濟的이라는 點을 알면서도 不得已 混線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臺灣은 여러 모로 우리 나

라와 비슷한 점이 많으나 우리보다 몇년 앞서 있는 듯하였다. 韓國動亂의 莫甚한 被害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앞으로 今次 에카페會議에서 採擇된 報告書 內容에 對해서 詳細히 紹介할 機會가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서는 다녀온 이야기를 雜談式으로 아무 頭序도 없이 쓴 것이며 한 나라에 1週日이나 2週日 머무르면서 보고 느낀 대로 쓴 것이므로 수박겉 핥기식 觀察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니 그 정도로 알고 읽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ECAFE 란?

ECAFE (Economic Council for Asia and the Far East) : 亞細亞極東經濟委員會는 國際聯合의 主要 機關의 하나인 經濟社會理事會 (Economic and Social Council) 傘下의 4個 地域別 委員會 中의 하나이다. (餘他 3個 地域別 委員會는 歐洲,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國際聯合의 經濟社會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出되는 18個國으로 構成되며 人類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의 促進을 目的으로 하고 各國民의 生活水準과 教育·文化의 向上을 期하여 經濟, 社會, 文化, 教育, 保健 및 人權에 關한 國際的 事項에 關하여 總會, 加盟國 및 專門機關에 勸告하는 外에 安全保障理事會와 信託統治理事會에 對한 情報提供과 援助, 民間團體와의 協議 等の 任務와 權限을 가지고 있다.

理事會는 經濟的, 社會的 分野의 委員會, 人權의 伸長에 關한 委員會 및 自己 任務의 遂行에 必要한 其他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는데 (第68條) 經濟社會理事會 傘下의 主要 委員會는 아래와 같다.

- (A) 職能的 委員會
- (B) 地域別 委員會
- (C) 國聯兒童基金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ICEF)
- (D) 國聯特別基金 (United Nations' Special Fund = UNSF)

即 ECAFE는 上述한 바와 같이 (B) 地域別 委員會의 하나인 바 本部 所在地는 泰國 首都 Bangkok. 加盟國은 韓國을 包含하여 28個國이며 總會 (每年 1回 開催) 및 産業貿易·內陸運輸의 2個 委員會와 鐵鋼·貿易·電力·鑛業資源·中小企業 等の 小委員會를 가지고 있다. <事務局>

白熱電球時代로 逆行(?)

<最近의 照明器具의 傾向>

最近의 世界的인 傾向으로서 螢光燈萬能의 時代가 어느덧 終末을 告하고 다시 白熱電球時代로 逆行하는 徵兆가 濃厚해지고 있다 한다. 2, 3年前까지만 해도 파르스름하게 빛나고 있던 大都市의 밤하늘이 요사이는 눈에 뜨이게 노리끼한 色彩를 發하게 되었다는 것이 世界 各國을 자주 旅行하는 사람들의 共通된 印象인 것 같다.

螢光燈은 그 越等한 經濟性으로 因하여 第2次 大戰 以後 世界的인 坊坊曲曲에서 急速하게 普及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다시 白熱電燈에로의 逆行이 始作되었다면 그만큼 理由가 반드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專門家의 辯, 「螢光燈은 人工光線을 되도록 낮의 自然光에 近接시키기 爲하여 開發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確實히 成功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便 생각컨대 普通 休息의 時間이라고 看做되는 밤의 生活을 낮과 꼭 같은 光線 밑에서 지내고자 하는 것 自體가 不自然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리하여 使用을 해보니 經濟性은 優秀하지만 여전히 포근한 安定感이 없다…… 即 白熱電燈으로의 逆行은 밤의 生活의 포근한 安定感을 되찾아 보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便 照明器具 販賣商의 立場에서 본 이러한 逆行現象의 原因은 아래와 같다. (日本의 경우)

첫째로 照明器具 自體에 對한 趣味性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둘째로 螢光燈이 讀書用이나 廚房用 等 限定된 目的에만 使用되는 傾向이 나타나고 居室이나 應接室 等에는 一種의 무우드룬 간직한 포근한 親近感을 주는 白熱電球가 다시 使用되기 始作하였다는 것.

셋째로 照明器具로서 設計하는 경우 그 形狀 때문에 螢光燈에는 하나의 制約이 따라 다닌다는 것. 이點 白熱電球의 경우는 自由로운 넓이를 가진 器具를 設計할 수가 있다.

이렇게 考察하면 白熱電球의 復活現象은 單純히 流行이나 붐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生活經驗을 通하여 當然한 歸結로서 다시 이것을 찾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海)(外)(消)(息)